

홍건희·임기영 ‘젊은 선발’로 잠실꿈 사냥 나선다

T 타이거즈 전망대

주중 두산 원정경기...주말엔 홈에서 넥센과 승부
‘방어율 10.45’ 불펜 고민 임창용 살아야 해소

‘10.45’의 불펜 고민에 신음하는 ‘공동 2위’ KIA 타이거즈다.

KIA는 지난주 안방에서 SK, 한화를 만났다. 비로 5일 경기를 쓴 KIA는 4승1패를 수확했다. 삼성전 위닝 시리즈를 더해 6승2패를 기록, 4연승 행진을 달린 kt에 이어 LG, 롯데와 공동 2위에 올라있다.

지난해와 달리 승운까지 더해 양현종이 지난주 두 경기에 나와 모두 승리투수가 됐고, ‘에이스’ 헤테는 여전히 실력으로 시즌 두 번째 등판에서 완투승을 완성했다. 팻덴도 첫 등판보다는 조금은 무난 모습을 보였지만 5.2이닝 1실점으로 제 몫을 해줬다. 여기에 선발 데뷔전에 나선 임기영이 SK 타선을 6이닝 1실점으로 묶는 등 KIA 선발진은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불펜을 생각하면 한숨 먼저 나온다.

지난 주 한승혁과 임창용이 불펜 세이브를 추가하는 등 구원진의 평균자책점이 10.45까지 치솟았다. ‘불펜 가동=실점’을 의미하는 수치, 6.91의 9위 넥센과도 차이가 난다.

지난 1일 삼성전에서 9회 7실점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불펜의 중심에는 마무리 임창용이 있다. 4경기에 나온 임창용의 성적은 3이닝 8피안타 3실점, 평균자책점 9.00. 여기에 4경기에서 모두 사사구가 기록되는 등 제구·구위 모두 마무리답지 못했다.

다행히 초반 두 경기는 팀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지난 8일 경기는 임창용이 불펜세이브에 이어 패전투수가 되며 새드 엔딩으로 끝났다.

■ 2017 정규리그 순위 (4월 10일 현재)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kt	7	0	1	0.875	0.0	4승
2	KIA	6	0	2	0.750	1.0	1승
2	LG	6	0	2	0.750	1.0	2패
2	롯데	6	0	2	0.750	1.0	2승
5	두산	3	0	5	0.375	4.0	4패
5	NC	3	0	5	0.375	4.0	2패
5	넥센	3	0	5	0.375	4.0	3승
5	한화	3	0	5	0.375	4.0	1패
9	SK	2	0	6	0.250	5.0	2승
10	삼성	1	0	7	0.125	6.0	5패

9일에는 아웃카운트를 남겨놓고 강판이 되기도 했다. 3-1의 리드에서 9회 출격해 임창용은 이번에도 실점을 한 뒤 2사 1·2루까지 몰렸다. 결국 마운드로 걸음을 한 김기태 감독은 임창용을 내리고 좌완 심동섭을 투입해 1점의 승리를 지켰다.

임창용과 팀을 동시에 살리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창용은 어찌 됐든 불펜에서 ‘말똥’ 역할을 해야 하는 선수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과 힘이 떨어진 마무리에게 무조건 마무리 자리를 보장해줄 수는 없다. 여기에 임창용의 부진 속에 한승혁·심동섭 두 필승조의 과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승혁과 심동섭은 나란히 8경기에서 5번 마운드에 올랐다. 한승혁은 8·9일 연달아 1이닝 이상을 던지는 등 벌써 5.2이닝을 소화했다. 3.2이닝을 막은 심동섭은 불펜진의 유일한 좌완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면서 ‘임시 휴업’ 상태의 불펜진이 나오는 등 초반 마운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

타자들이 불펜 안정화를 위해 힘을 보태줘야 한다. 예년과 다른 뒷심으로 불펜진이 흐트러 놓은 경기를 끌고 오고 있지만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기울게 하는 파괴력이 조금은 아쉽다. 3번 김주찬의 회복세가 절실한 타선이다. 그나마 톨타자 버나디나가 첫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시즌을 위한 위망업을 끝냈다는 건 호재다.

KIA는 이번 주 두산과의 원정 3연전에 이어 안방으로 돌아와 넥센과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젊은 선발진의 역할이 중요한 두산 원정이다. KIA는 11일 홍건희를 선발로 해 두산 장원준을 상대한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장원준의 우위다. 여기에 지난 1일 불펜으로 첫 등판을 소화했던 홍건희는 1이닝 8실점 이후 등판 기록이 없다. 자신감 회복과 경기감각이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한다. 임기영은 파워에 정교함까지 겸비한 두산 타자들을 상대로 두 번째 선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두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불펜의 한 주 운영 모습도 달라진다. 멀리 보는 마운드 운영 전략이 필요한 두산 3연전이다.

주말은 ‘넥센 포비아’ 극복을 위한 무대다. 지독한 넥센 열세에 시달려온 KIA는 지난해에도 5승11패의 상대전적을 기록했다. 가을 잔치를 위해서는 ‘천적’ 관계 재정리가 필요하다. 타선의 파워 싸움으로 넥센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식

이명기

“사인 익히느라 바빠요” “신인 된 기분입니다”

이적생 김민식·이명기

신인의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이적생’ 김민식과 이명기다.

지난 9일 한화와의 경기를 앞두고 긴장된 모습으로 KIA 덕아웃을 오가는 두 선수가 눈에 띄었다. 아직은 KIA 선수라는 게 어색한 포수 김민식과 외야수 이명기였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4대4 트레이드’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KIA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외야수 노수광, 포수 이흥구와 함께 포수 이성우, 외야수 윤정우를 SK에 내주고, 포수 김민식과 외야수 이명기 그리고 내야수 최정민·노관현을 받아들였다. 특히 노수광과 이흥구는 KIA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자원으로 사랑받았던 터라 KIA 팬들에게는 ‘감격 트레이드’였다. 그만큼 이번 트레이드의 중심에 있는

김민식과 이명기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렸다.

아직은 새 팀의 훈련 시스템 등이 익숙지 않은 두 사람은 동료들 따라 부지런히 덕아웃과 경기장을 오가면서 정신 없이 경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KIA 데뷔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8일에 이어 9일 한화전에서 포수 마스크를 쓰고 선발로 경기를 소화한 대졸 6년 차 김민식(28)은 차분한 리드와 안정된 블로킹 실력을 보였다. 무엇보다 특급 송구로 두 차례 한화의 주자를 덕아웃으로 돌려보내는 등 도루 저지 실력까지 발휘했다.

9일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이명기(30)도 내야 안타 두 개를 기록하는 등 KIA에서의 스타트를 잘 끊었다.

김민식은 “사인 익히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다. 도루를 잡아서 좋기는 하

지만 첫 경기에서 승리를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 투수들의 성향도 잘 파악해야 하고 완벽하게 더 공부해야 한다”며 “집중해서 플레이를 하겠다. 안정적으로 수비하는 포수로 인정받고 싶다. 팀이 이기는 걸 우선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06년 인턴고를 졸업하고 SK에서 10년 넘게 프로생활을 한 이명기에게도 KIA 선수로 선 첫 경기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명기는 “신인이 되어 처음 1군 경기를 뛰는 기분이었다”며 “다행히 운이 좋아서 안타를 기록할 수 있었다.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다. 팀에 친한 선수가 별로 없어서 처음에 걱정하기도 했는데 빨리 친해져서 팀에 적응하도록 하겠다. 기대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르시아 ‘그린재킷’... 22년만에 메이저 한 풀다



마스터스 연장에서 로즈 제쳐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메이저장크스를 깨고 올해 마스터스 토너먼트 그린재킷의 주인공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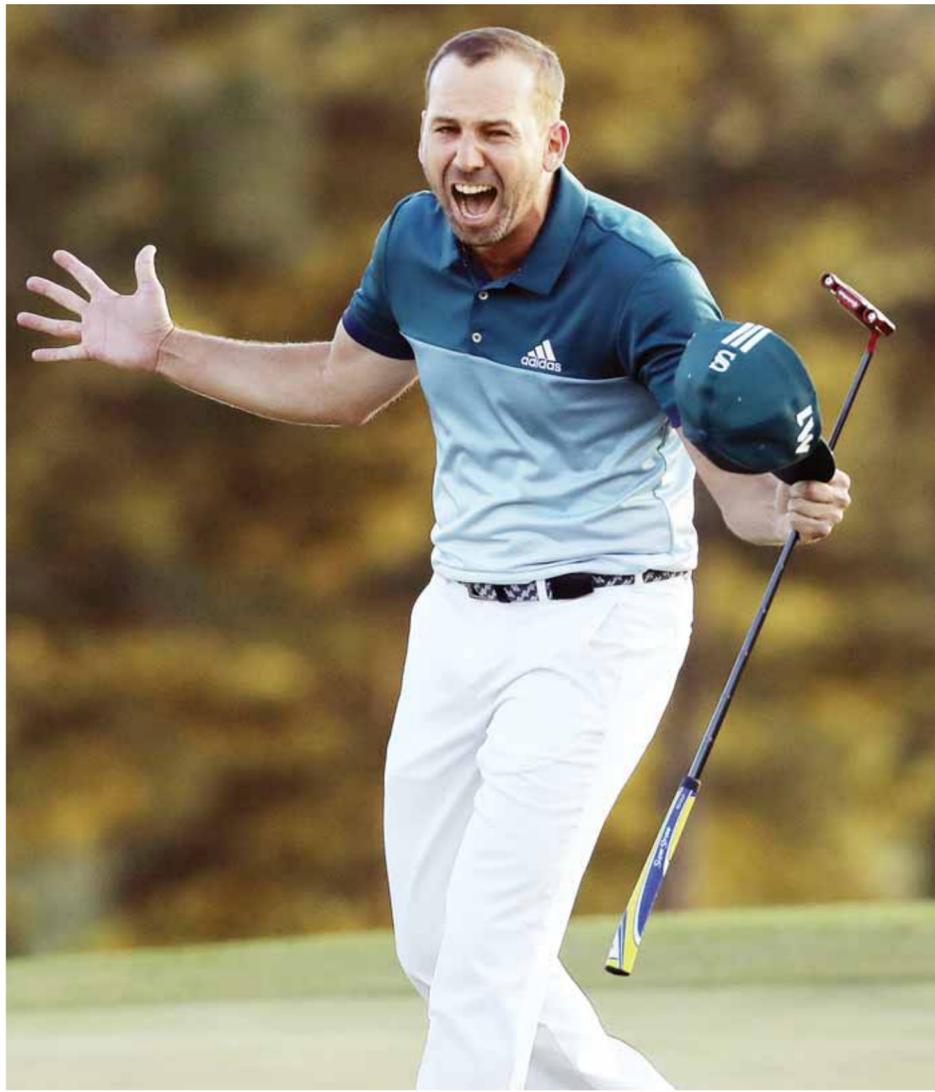
가르시아는 10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1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일 4라운드에서 연장 승부 끝에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를 제치고 우승했다.

18홀(파4)에서 서든데스로 펼쳐진 연장전에서 티샷 실수를 한 로즈가 보기로 먼저 돌아온 뒤 가르시아에게 4m남짓한 버디퍼팅 기회가 왔다. 파 세이브만 해도 우승이 확정이었지만 가르시아는 버디퍼팅을 성공했다.

이 퍼팅으로 가르시아는 1996년 브리티시 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데뷔전을 치른 이후 22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골프계의 정상에 올랐다.

2년에 걸친 퀴드러플 보기의 저주를 깨고 역전 우승에 도전했던 조던 스피스(미국)는 3오버파 75타로 부진해 공동 4위에서 공동 11위로 미끌어졌다. 특히 스피스는 2년 전 퀴드러플 보기를 기록했던 12번 홀에서 다시 워터해저드에 빠지면서 더블 보기를 적어내야 했다.

한편 한국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컷을 통과한 안병훈은 2언더파 72타로 공동 33위를 기록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제81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일 연장전에서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연장 첫 홀인 18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티샷 실수로 보기에 그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를 제치고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7경기만에 등판 오승환 또 피홈런... 팀 0-8 완패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컨디션 점검 차 7일 만에 마운드에 올랐다가 또 홈런을 맞았다.

오승환은 10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홈 경기에 팀이 0-7로 끌려가던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이닝 2피안타 1피홈런 1볼넷 1실점으로 부진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8km(91.8마일)에 그쳤고, 투구 수 23개 중 스트라이크 12개로 제구 난조를 겪었다.

팀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은 지난 3일 시카고 컵스와 개막전 이후 계속해서 등판 기회를 잡지 못했고, 벤치에서는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그를 마운드에 올렸다. 하지만 오승환은 지난해와 같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전했다.

첫 타자 호세 페라사는 내야 뜬공으로

간단하게 처리했지만, 다음 타자 조이 보토에게 솔로 홈런을 내줬다. 3일 컵스 전 점점 스리런 홈런에 이은 2경기 연속 피홈런이다.

오승환은 볼카운트 1볼에서 카운트를 잡으려고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신시내티 중심타자 보토는 가볍게 퍼 올려 부시 스타디움 오른쪽 담을 넘겼다.

지난해 오승환은 76경기에 등판해 홈런 5개를 내줬지만, 이를 연속 허용한 적은 없었다.

곧이어 오승환은 애덤 두발에게 볼넷, 에우제니오 수아레스에게 중전 안타를 맞고 흔들렸다. 오승환은 추가실점 위기에서 어리스멘디 알칸타라와 잭 코자트를 연달아 유격수 뜬공으로 잡아내고 힘겹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세인트루이스는 0-8로 패했다.

108년만의 WS 우승 시카고

108개 다이아 박힌 반지 쓴다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를 108년 만에 제패한 시카고 컵스가 선수들에게 나눠줄 우승 반지도 화려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ESPN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버스터 올니는 10일 트위터에서 컵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17개당 108개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108년 만에 WS의 우승 한(俄)을 푼 기념으로 우승하지 못한 햇수만큼 다이아몬드를 반지에 뽕뽕 박은 것이다.

컵스는 1945년 월드시리즈에서 염소를 끌고 온 팬을 쫓아낸 이래 월드시리즈 우승은 커녕 월드시리즈 출전도 못해 지독한 ‘염소의 저주’에 시달리다가 지난해에서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제물로 저주를 풀었다. 1908년 이래 108년 만이자 팀 통산 세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이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불러들여 11일 홈 개막전을 치르는 컵스는 13일 경

기 직전 우승 반지를 선수들과 코치진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11일에는 WS 우승 깃발을 펴고 팬들과 우승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눈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7전4승제)에서 컵스에 패해 월드시리즈 문턱에서 주저앉은 다저스 선수들은 컵스의 우승 자축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일간지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전했다.

3루수 저스틴 터너는 컵스의 WS 우승 깃발이 펼쳐지는 장면과 우승 반지 수여식을 보지 않고 따뜻한 클럽하우스에 머물렀다고 했다. 그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 한다면 우리가 우승한 뒤에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4도 안팎의 추운 날씨에 45분간 더그아웃 밖에 들어서 우승 반지 수여식을 봐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행위인지 모르겠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연합뉴스